

## 9. 임신과 불임

아기를 원하는 부부 10쌍중 한 쌍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으로 나타났고, 이들 불임의 원인이 55% 이상 남성에게 있다고 밝혀졌다. 더 심각한 것은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생활습관과 불임치료법을 소개한다.

[http://www.kbs.co.kr/1tv/sisa/health/view/vod/1248167\\_941.html](http://www.kbs.co.kr/1tv/sisa/health/view/vod/1248167_941.html)

### 1) '정자'가 위태롭다

현대 남성의 '정자' 숫자와 활동성, 부모 세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프랑스 파리 정자 은행의 주아네 박사는 보관된 정자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73년 당시 프랑스 남성의 평균 정자 수는 1ml당 8900만개.

그러나 92년에는 6000만개로 20년이 되지 않는 사이 33%나 감소했다.

국내 불임 전문의들도 정자의 숫자나 운동성 등에 문제를 가진 불임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과음, 흡연, 과로가 원인이고, 컴퓨터, 휴대전화 등 많은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금속 중독도 정자형성이나 운동성에 지장을 준다고 밝혀졌다.

### 2) '난자'가 위태롭다.

'생리주기와 생리통'을 주의하라

비만 혹은 체중미달로 호르몬 조절이 잘못되거나 중금속 중독 등으로 난자형성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자궁내막증'이나 질염, '다낭성난소증후군, '난관염' '과 같은 여성 생식기 질환이 여성 불임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3) 건강한 정자와 난자를 지켜라

미국 불임학회가 제시하는 '불임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제시

25년 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이후, 보조생식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불임의 80%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불임학회가 제시하는 '불임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제안한다.

### 4) 시험관아기 기술의 진화, 불임률 0%에 도전

2007년, 8만7천 쌍 이상의 부부가 불임으로 인한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진짜 불임은 10%뿐! 90%는 치료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불임률 0%에 도전하는 시험관 기술의 최근 동향을 살핀다.

### 5) 정자가 없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최근 40년동안 남성의 정자수는 무려 45%가 줄었다고 한다. 남성불임이 늘고 있는

요즘, 정자가 없어도 아이를 가진 사례를 소개한다.

"정원줄기세포"로 고환에서는 만들지 못했던 정자를 체외 배양하는 최첨단불임치료법 "정세포배양법"으로 정자를 키울 수 있다.

#### 6) 유전자질환 가족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착상 전 유전자 진단(PGD) - 유전자 질환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질환이 없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염색체 9번에 이상이 있어 발생하는 습관성 유산을 막는 형광직접조합법(FISH)에 대해 알아본다.

#### 7) 시험관아기 시술의 새로운 활로, 유리 동결

현재 젊은 시절 난자를 동결해 두고 원할 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난자은행이 도입되고 있다.

얼리지만 얼지 않는 유리화 동결, 2007년 국내 한 불임치료전문병원은 세계 최초로 '슬러시 질소'를 이용한 유리화 동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첨단 불임치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유리화 동결기술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 8) 아이를 기다리는 불임부부들에게

의사들은 현재 불임치료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불임부부의 90% 이상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임은 한 가정의 대가 끊기고 한 사회가 중단되기 때문에 한 가정에 크나큰 불행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최첨단 불임치료법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